

택시기사 생존권 문제 해결되나

당정,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 추진

회사 수익성 악화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할 듯
택시업계는 '카풀' 반대
"산업 정상화와 별개"
정부 대안대로 이뤄지면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두고 거세지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한 조치로 보인다. 택시 월급제는 이미 도입은 됐으나 실제 유명무실해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제도로 월급제 정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가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납금제도다. 이는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하루 10~15만원씩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카풀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들은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쟁서비스인 카풀이 활성화되면 택시기사들은 먹고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톡은 1년째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국회 앞

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가격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동시에, 공학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택시업계도 카풀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택시월급제로 하면 택시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결국 세금으로 지원할 듯 하다. 세금 지원 없이 월급제로 하고 월급을 얼마 이상 주라고 하면 택시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인 '생존권 위협' 문제가 해소되면 카풀 논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에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정상화와 카풀 서비스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택시산업 정상화 정책과 별개로 카풀은 완전히 반대한다.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업체가 없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며, "노사가 모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안전 월급제를 할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안대로 이루어진다면,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대략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보전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비리타는 17일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카풀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송효철 기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기사 월급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택시업계의 고질적 현안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카풀 정식 서비스를 앞



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지난 14일 모래내시장에서 알짜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

'볼거리·먹거리 가득 전통시장으로'

전주 모래내시장 알짜이벤트 행사 개최

전주 모래내시장이 고객들을 위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련했다. 전주모래내시장 상인회(회장 이완열)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엄음호)은 지난 14일 모래내시장에서 알짜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모래내시장 알짜이벤트는 올해 상인회가 마련한 두 번째로 이벤트로, 지역주민과 상인, 고객들에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플리마켓 △저글링과 불쇼, 외발자전거 타기, 미술 등 서커스 공연이 선보여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하고 멋진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전통시장 플리마켓 행사에는 수공예품 10팀(핸드메이드 디자인 제품, 공예품, 악세서리 등), 먹거리 5팀(수제로 만든 수제청, 곤약 등) 등 총 15팀이 참여,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벤트(캐리커처, 머그컵만들기, 케이크만들기 등)

와 경품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모래내시장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한 상인은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모래내시장 곳곳에서 펼쳐져 전통시장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아졌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규모 행사가 시장 내에서 고정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열 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추운 날씨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침체된 시장경제가 이번 이벤트로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즐거운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래내시장은 2018년 중소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0년 2월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 8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지난 14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전주시가 일반산업단지외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증설투자계획을 확정된 비나텍(주)·(유)두레원과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투자유치 '올인'

시, 입주예정기업 초청 설명회 비나텍·두레원 등과 협약 체결

전주시가 국가사업으로 조성되는 탄소소재 국가산단(이하 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나섰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담초 예산(5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1220억원이 확보되면서 조기 완공에 판란불이 켜졌다. 시는 지난 14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 10개 업체의 관계자 13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입주예정기업들에게 투자처인 전주의 현황을 소개하고, 직접 눈으로 전주가 보유한 탄소관련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탄소산업 중심 도시 전주'를 주제로 전주의 환경과 교육, 교통 여건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과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또,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를 견학하고, 이진투사가 보유한 탄소관련 인프라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06억원을 들여 65만6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희망을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향후에도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20만평)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여개사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단지가 탄소기반소재부터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산업단지 자리매김하면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탄소관련 기업과 신성장 분야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투자예정기업으로 선정하고 꾸준히 방문상담을 실시해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탄소 일번지 전주에 탄소 소재 국가산단 단지가 조성되면 탄소 관련 기업들이 이전하고, 기존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이뤄내 전주가 세계적인 탄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투자설명회에서 일반산업단지외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증설투자계획을 확정된 2개 기업 비나텍(주)(대표 황도경)과 (유)두레원(대표 김정숙)과의 MOU를 체결했으며, 비나텍은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총 75억을 투자해 3,300㎡(1,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2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두레원은 100억을 투자해 3만㎡(9,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2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올해 마지막 사회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 생활복지과는 지난 13일 평화공공2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해 마지막 사회복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무엇이고, 수급자를 조사, 선정할 때 말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완화될 예정인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히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 완산구는 내년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찾아 상담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복지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드론축구협, 광주 광산구 빛고을드론과 교육 협약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드론축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빛고을드론은 지난 14일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외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드론축구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장형 미래스포츠 드론축구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효철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병역법에서 정한 양심 다른 정당한 거부" 사유 밝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임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받았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모씨(23)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S모씨 등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려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임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명 중 2명의 아버지는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모씨 등은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는 Y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제기했다. /강석훈 기자

초등학교에서 금품 훔치다 '덜미'

아침한 새벽, 초등학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49)는 지난 14일 오전 3시 48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노트북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가 침입한 초등학교는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보안업체에서는 이상이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모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마트서 휴대폰 훔친 외국인 검거

대형마트에서 휴대폰을 훔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피의자 A모씨(28)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9시경 B대형마트 휴게실에서 피의자 C모씨(56)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절취하려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오후 6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에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 위촉식

전북혈액원은 13일, 전북혈액원 3층 강당에서 헌혈홍보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위원은 (주)전주교차로 유창희 대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진 교수, 원광여자중학교 송태규 교장,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 (주)안전관리기술원 김병곤 대표로 총 5명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송태규 교장

은 248회의 헌혈기록을 가진 다회 헌혈자다. 이영진 교수도 지난 5월 17일 50번째 헌혈을 했고 건강만 허락 한다면 100회까지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헌혈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많다. 이항근 교육장은 지난 2017년 고창고 교장으로 근무 당시 전북혈액원과 헌혈약정을 맺었다. 김병곤 대표는 "헌혈경험이 다른

위원들에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강의나 강연을 할 때 헌혈에 대해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전북혈액원장은 "앞으로 대외적인 헌혈홍보활동과 혈액사업 행사 참석, 자문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 헌혈홍보위원들은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헌혈 참여율을 높이고 혈액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